

# 일본 경제 동향 (2014.12월)

## 2014년 일본경제의 평가 및 과제

### < 목 차 >

<b>I . 일본 경제 지표 .....</b>	<b>1</b>
<b>II .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b>	<b>2</b>
1. 완만한 회복궤도 진입 .....	2
2. 엔저에도 무역적자 확대 .....	8
3. 엔저가속·고주가·저금리 .....	11
4. 10월 해외직접투자 급증 .....	13
<b>III . 일본의 주요 정책 .....</b>	<b>15</b>
1. 2014년 일본경제의 평가 및 과제 .....	15
<b>IV . 한일 경제관계 분석 .....</b>	<b>20</b>
1. 11월, 대일무역적자 확대 .....	20
2. 대일경제관계에 악재, 호재 병존 .....	22
3. 3개월 연속 방한 일본인 감소, 방일 한국인도 감소 .....	24
<b>V . 참고 자료 .....</b>	<b>25</b>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	25
2. 일본의 주요 경제일정 .....	27

##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2	2013	2013	2014			201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GDP증가율(연율,%)	1.8	1.6	-1.5	5.8	△6.7	△1.9p	-		
경기동향지수(2010=100)	-	-	111.5	-	-	-	109.3	109.9	-
광공업생산증가율(전기비,%)	0.6	△0.8	1.9	2.9	△3.8	△1.9	2.9	0.4	-
소비자물가	전기비 상승율(%)	0.4	0.3	0.2	2.3	0.3	0.0	0.1	-
전년동기비		0.4	1.1	1.3	3.3	3.2	3.0	2.9	-
실업율(%)		4.3	4.0	3.9	3.6	3.6	3.6	3.5	-
수출(조엔)		63.7	69.8	18.1	17.5	17.6	18.3	6.4	6.7
수입(조엔)		70.7	81.3	21.8	22.4	20.2	21.2	7.3	7.4
무역수지(조엔)		△8.4	△11.5	△3.7	△5.0	△2.6	△2.9	△0.9	△0.7
경상수지(조엔)		4.8	3.3	△1.4	△0.9	0.3	-	1.0	0.8
해외직접투자(조엔)		9.8	13.2	3.1	2.6	2.0	-	0.7	1.5
환율	달러	80.1	97.7	100.5	102.8	102.1	104.0	107.1	108.1
	원화(100엔)	1,413	1,123	1035.7	1,039	1,008.2	987.3	962	983
금리(10년물,%)		0.78	0.72	0.64	0.63	0.60	0.53	0.54	0.49
주가(닛케이)		9,612	13,651	15,388	14,958	14,655	15,562	15,948	15,394
									17,179

주: (p)는 2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 (경기판단) 완만한 회복궤도 진입

- '14.10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9.9로 전월비 0.6p 상승

###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회복

- '14.10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0.9조엔 무역적자로 29개월 연속 적자

- '14.11월 수출은 6.2조엔 수입은 7.1조엔

### □ (환율) 엔화환율은 엔저 가속

- '14.11월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평균치는 116.2엔으로 전월대비 7.5% 엔저

\* '14.11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43원으로 전월대비 4.1% 엔저·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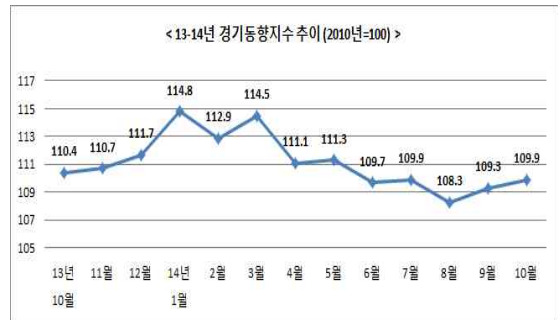
##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 1. 완만한 회복궤도 진입

#### □ (총 합)

- 일본경제는 3분기의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현재도 개인소비 등 내수에 약간의 불안요소가 남아있기는 하나 소비세증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회복중

- '14.10월 일치지수로 본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전월보다 0.6p 상승한 109.9로 2개월 연속 상승



자료 : 내각부

- 고용 및 소득관련 지표들의 개선과 함께, 생산과 설비투자도 개선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음

#### □ (전 망)

- 앞으로 일본경제는 소비세증세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만한 회복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개인소비는 임금소득의 회복, 설비투자도 생산·수익의 회복을 배경으로 각각 회복될 전망
- 수출은 완만하나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엔저의 가속화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기조가 지속될 전망
- 이에 따라 2014년 4분기 GDP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될 전망

## □ (시사점)

- 10월말 발표된 추가금융완화에 이어 12월 27일 결정된 3.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의 경기부양책, 달러당 120엔대의 엔저 가속과 유가하락 등은 4분기 GDP성장율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득증가→ 소비증가→ 물가상승에 의한 디플레이션 탈출과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안정과 성장전략을 통한 성장력 강화가 총선거 이후 더욱 주력해야할 과제임

## □ (GDP) 2014. 3분기 성장률, -1.9%로 하향수정

- 일본 내각부는 2014년 3분기 실질 GDP성장율을 전기비 연율 -1.9%로 1차 속보치 -1.6%보다 0.3%p 하향수정
  - 1차 속보치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공공투자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 설비투자는 전기비 0.4% 감소로 1차 속보치보다 0.2%p 하락
    - 공공투자는 1.4% 증가로 1차 속보치보다 0.8%p 하락
  - 개인소비는 1차 속보치와 같은 0.4% 증가했으나, 5.1%의 큰 폭의 감소를 보인 2분기로부터 회복속도는 느린 편
  - GDP성장에 대한 내수기여도는 -0.5%p
  - 외수는 수출이 1차 속보치와 같은 1.3% 증가, 수입은 1차 속보치보다 0.1%p 낮은 0.7% 증가, 외수의 GDP기여도 0.1%p
- 물가동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비로 1차 속보치보다 0.1%p 낮은 2%
- 일본의 약 40여개 민간싱크탱크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전기비 연율 3.25%로 회복될 전망
  - 엔저 가속에 의한 수출(물량)회복, 광공업생산과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의 호조 등이 주된 요인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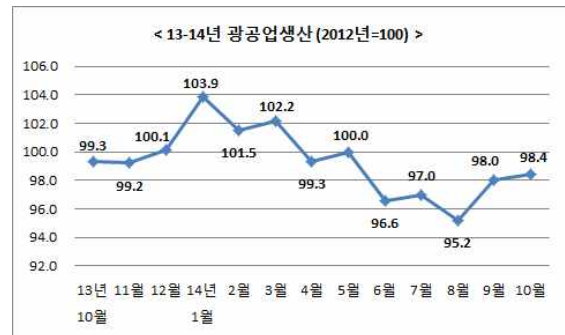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3		2014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1.8	1.6	0.4	-0.4	1.4	-1.7	-0.5	-
전기비연율			1.6	(-1.5)	(5.8)	(-6.7)	-1.9	-
전년동기비			2.2	2.3	2.5	-0.3	-1.3	-

자료: 일본 내각부

**□ (광공업생산) 2014.10월, 9월에 이어 연속 증가**

- ‘14.10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비 0.4% 증가, 2개월 연속 증가
- 15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증가, 9개 업종이 감소

- 소비의 정체가 그 배경
- 업종별로는 수송기계는 부진, 범용·생산·업무용 기계는 회복
- 당분간 재고 부담의 압력이 남아있기는 하나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 3차 산업의 회복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자료 :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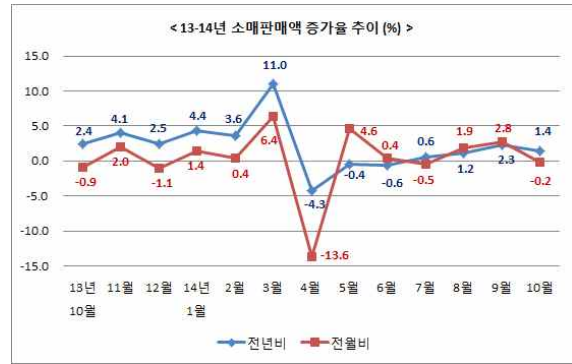
- 제조공업생산 예측조사에 의하면, 11월에는 전월비 2.3% 증가, 12월 0.4% 증가를 예상

**□ (소 비) 소비심리는 약한 편이나 바닥은 탄탄**

- ‘14.10월 소비는 소매업 판매액면에서 전월비 0.2% 감소
- 그러나 소비의 수요측 통계인 실질소비지출은 0.9% 증가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광공업출하지수 등)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전월비 0.2% 감소
- 일본 내각부는 소비심리는 약한 편이나 바닥은 탄탄해지고 있다고 진단

- 그 배경에는 실질 임금소득이 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마인드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약세를 띄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앞으로 고용임금소득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당분간 소비가 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자료 :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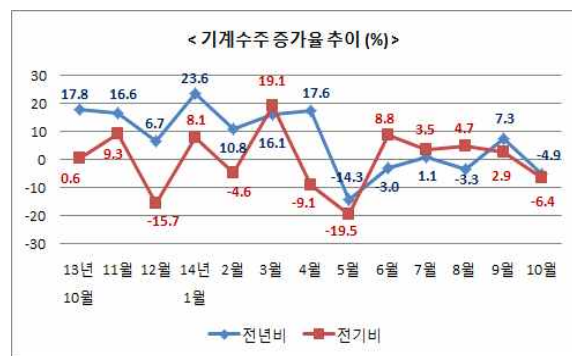
- 다만, 소비마인드의 저하가 소비의 회복속도를 떨어트릴 우려는 있다고 보여 지고 있음

#### □ (설비투자) '14.10월 기계수주액, 6.4% 감소

- '14.10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6.4% 감소, 전월비로 감소한 것은 5개월만임

- 전월에 집중되었던 전기기계업체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발주 등의 반작용 영향
- 이 점을 고려하여 일본 내각부의 기초판단은 완만한 회복 움직임이 보여진다는 전월의 판단을 유지

- 일본은행 단칸(2014년 12월)에 의하면 2014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3년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은 4년 연속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3년 연속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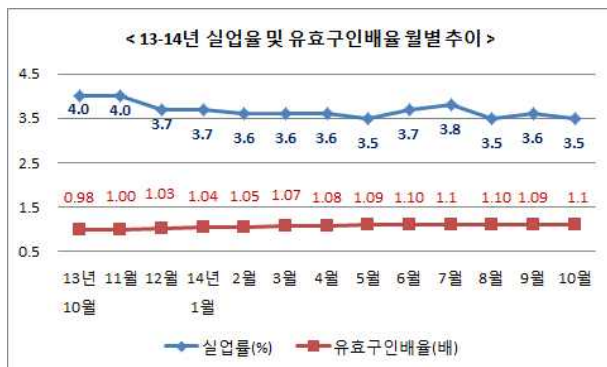


자료 :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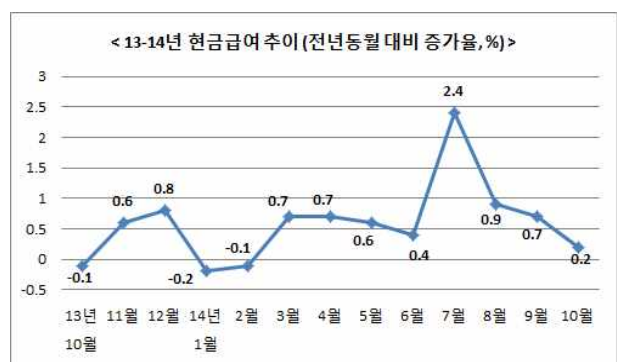
- 설비과잉감은 제조업에서 아직 남아있기는 하나 개선되고 있음
-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10~12월)에서도 2014년도 설비투자계획이 대기업제조업, 대기업비제조업 모두 증가 예상
- 최근 소비세 인상의 반작용 영향이 줄어들면서 생산과 기업수익이 회복되고 있고 여기에 엔저도 가세함에 따라, 2분기와 3분기에 연속 감소했던 설비투자는 앞으로 회복될 전망

## □ (고 용) 실업율 저하·임금의 전조로 안정세 유지

- ‘14년 10월 완전실업율은 3.5%로 9월보다 0.1%p 저하
  - 일손부족현상이 심했던 여성근로자의 취업증가가 실업율 저하에 기여
  - 취업자 수는 6,355만명으로 전월보다 11만명 감소
  - 완전실업자 수는 234만명으로 전월보다 3만명 감소
- 9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10배로 9월보다 0.1%p 상승한 가운데 일손부족현상이 지속
  - 일본은행 단칸(12월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의 고용부족감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임금은 정기급여가 전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금급여 총액은 전년동월대비 0.2% 증가로 전월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
  - 그러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8% 감소로 16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2개월 연속 축소



자료 : 후생노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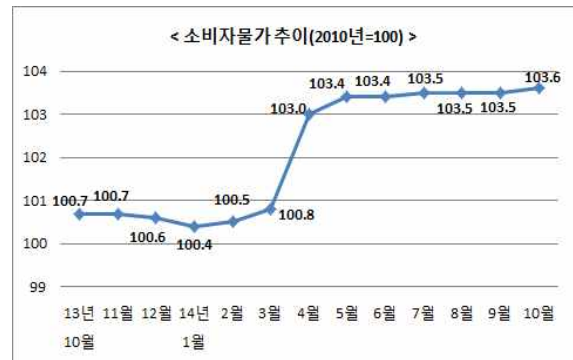


자료 : 후생노동성

## □ (소비자물가) 14.10월, 0.1%상승에도, 2% 목표달성과 디플레이탈출에는 미흡

- ‘14.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은 전월 대비 0.1%로 전월보다 0.1%p 상승

-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 상승, 17개월 연속 상승
- 그러나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효과를 2.0%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코어코어 CPI)은 0.9%로 1년 만에 1%를 하회
- 2014년 4월 1.5%를 정점으로 코어코어CPI의 상승폭이 축소됨에 따라, 일본은행의 소비자물가상승율 2%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현재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에 의한 추가 금융완화 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엔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과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하락 압력이 공존하고 있는 점도 향후 물가향방에 큰 변수가 되고 있음



## 2. 엔저에도 무역적자 확대

□ (총 합) '14.11월 무역적자, 0.9조 엔으로 29개월 연속 적자

- '14.11월에도 무역수지가 전월보다 0.2조 엔 확대된 0.9조 엔의 적자를 보임으로써 29개월 연속 적자
- 적자폭 확대는 수출, 수입 모두 감소했으나 수출의 감소폭이 수입의 감소폭보다 컸던 데 따른 것임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5,896억 엔에서 5,972억 엔으로 확대된 한편,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5,934억 엔에서 5,824억 엔으로 축소

< 2014년 11월 일본의 수출입 (단위: 조엔, %) >

	2014.10월			2014.11월			2014.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6.7	9.6	4.7	6.2	4.9	-7.5	66.2	4.0
수 입	7.4	2.7	1.4	7.1	1.7	-4.1	78.3	6.1
무역수지	-0.7	-35.5	-22.2	-0.9	-31.5	28.6	-12.1	19.8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출) 수출금액, 수량 모두 큰 폭으로 감소

- '14.11월 수출은 10월보다 7.5% 감소한 6.2조 엔, 전년동월비로는 4.9% 증가
- 수출 물량도 전월보다 8.9% 감소, 전년동월비로는 1.7% 감소
- 그러나 3개월 이동평균으로는 수출수량이 증가기조에 있어 서서히 엔저에 의한 수출수량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일본 내각부는 분석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순이며, 전월과 비교하여 원동기 대신에 과학광학기기가 포함
- 5대 수출품목 중 과학광학기기를 제외하고는 4개 품목이 전월보다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폭이 13.3%로 가장 크며, 이어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감소폭이 큼

- 과학광학기기의 수출은 1.3% 증가

< 2014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억 엔, %) >

순위	품목	2014.10월			2014.11월			2014.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0,151	6.2	-0.8	9,456	-0.7	-6.8	99,393	4.6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408	8.7	2.3	3,321	14.7	-2.6	33,386	2.6
3	철강	3,463	11.8	-0.5	3,167	4.9	-8.5	35,821	3.6
4	자동차부품	3,228	3.0	7.2	2,799	-3.3	-13.3	31,492	-0.6
5	과학광학기기	2,169	12.4	1.3	2,186	12.6	0.8	21,959	9.1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출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가운데, 對 EU수출의 감소폭이 13.2%로 가장 크고, 이어 대만, ASEAN, 중국, 미국 순으로 감소폭이 큼
- 유일하게 증가한 對 한국 수출은 1% 증가

< 2014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단위: 억 엔, %) >

순위	국가	2014.10월			2014.11월			2014.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2,683	8.9	9.5	12,083	6.8	-4.7	122,504	3.9
2	중국	12,296	7.2	6.5	11,516	0.9	-6.3	121,168	6.2
3	ASEAN	10,238	10.8	6.3	9,451	3.7	-7.7	100,424	1.2
4	EU	6,817	5.4	4.9	5,916	-1.3	-13.2	68,673	8.5
5	한국	4,779	3.0	1.4	4,829	11.4	1.0	49,579	-1.8
6	대만	3,834	16.2	13.3	3,517	3.5	-8.3	38,398	4.2

자료 : 일본 재무성

## □ (수 입) 금액, 수량 모두 감소로 반전

- '14.11월의 수입은 10월보다 4.1% 감소한 7.1조 엔
- 수입 물량도 전월 대비 5.9% 감소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통신기, 의류 및 동 부속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전월에 비하여 변동이 없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감소

- 의류 및 동 부속품의 수입 감소폭이 24.7%로 가장 크며, 이어 원유,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순으로 감소폭이 큼
- 통신기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은 각각 11.1% 및 4.7% 증가

< 2014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억 엔, %) >

순위	품목	2014.10월			2014.11월			2014.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10,784	-10.8	-4.8	9,762	-21.6	-9.5	127,687	-0.4
2	액화천연가스	6,198	6.1	0.6	6,490	12.2	4.7	70,528	10.7
3	통신기	3,475	29.6	-8.6	3,859	19.2	11.1	25,896	5.4
4	의류·동부속품	3,375	-2.8	-9.1	2,540	-3.4	-24.7	29,819	-0.6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539	8.5	-1.6	2,437	12.1	-4.0	26,208	17.5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ASEAN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6.6%로 가장 크고, 이어 중국, 미국, EU, 한국 순으로 수입 감소폭이 큼
- 유일하게 증가한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2.5% 증가

< 2014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단위: 억 엔, %) >

순위	국가	2014.10월			2014.11월			2014.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8,164	9.6	-0.4	17,484	3.9	-3.7	174,544	8.7
2	ASEAN	10,061	-1.6	-0.6	10,309	4.2	2.5	111,245	6.3
3	EU	6,997	4.9	0.1	6,820	2.4	-2.5	74,684	7.4
4	미국	6,538	11.0	5.9	6,262	-3.3	-4.2	68,605	9.3
5	호주	4,076	-0.6	-2.9	3,805	-1.8	-6.6	45,973	1.6
8	한국	3,062	-7.0	6.8	3,040	-1.1	-0.7	32,190	1.5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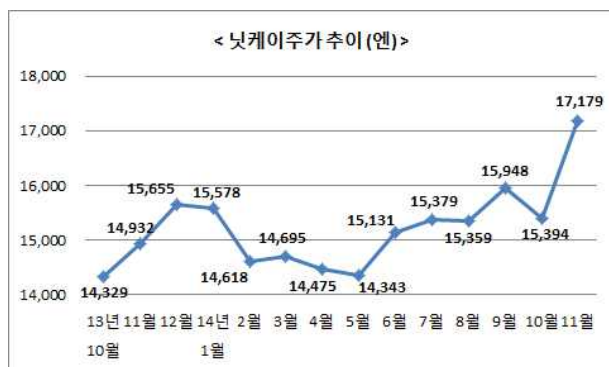
### 3. 엔저가속 · 고주가 · 저금리

####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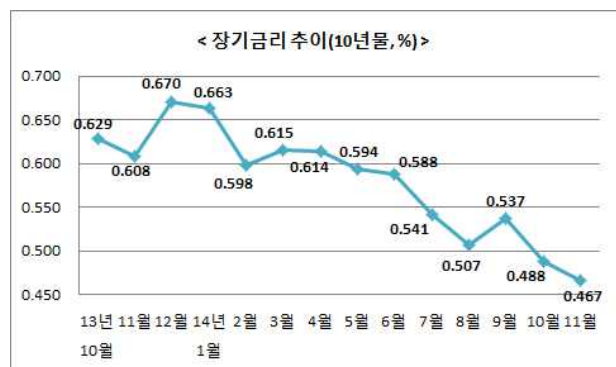
- ‘14.11월 평균 주가는 엔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1.6% 상승한 17,179엔
- 12월 들어서는 한때 해외주가의 하락을 배경으로 16,000엔대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하여 12월 25일 기준으로 17,854엔대까지 상승

#### □ (금 리)

- ‘14.11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과 유럽의 장기금리 하락 등을 배경으로 전월보다 4.1% 하락한 0.467%
- 12월 들어서도 계속 하락세가 이어져 12월 24일 기준으로 0.325%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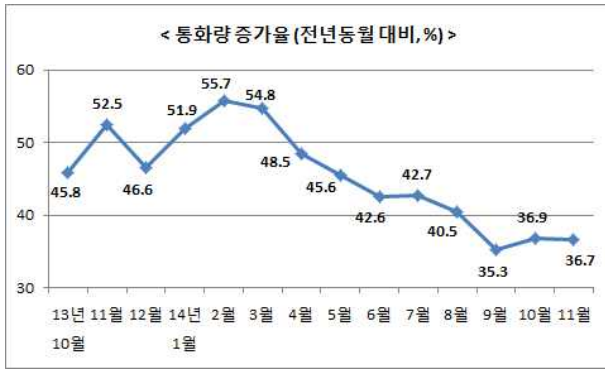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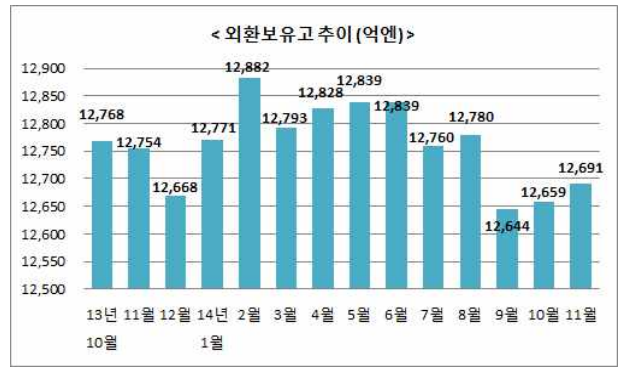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 (통화량)

- ‘14.11월 머니리베이스(평잔)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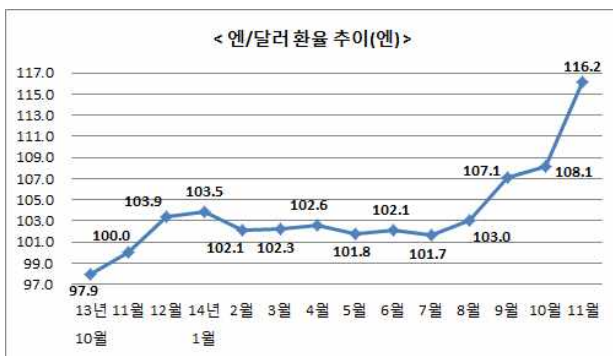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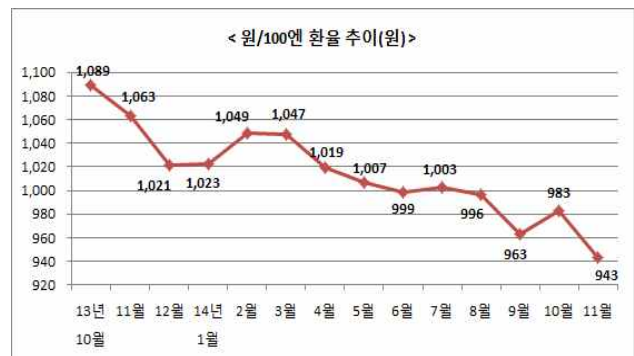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 (환 율)

- '14.1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와 무역적자 확대, 미국의 경기회복 등을 배경으로 10월보다 7.5% 상승한 116.21엔(엔저)
- 12월 들어 엔저현상이 가속, 12월 5일에는 7년 4개월 만에 120엔대를 돌파, 12월 24일 기준으로 120.59엔
-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 '14.11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43원으로 10월의 983원엔 비해 4.1%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 4. 10월 해외직접투자 급증

### □ (동향)

- '14.10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5,159억 엔으로 전월대비 119.5%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3	201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금 액		131,946	7,356	6,757	7,828	6,392	6,907	15,159
증가율	전기비	34.9	20.7	-8.1	15.9	-18.3	8.1	119.5
	전년동기비	34.9	-18.4	-21.4	-79.0	20.2	54.8	73.2

자료 : 일본 재무성

- 유럽과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각각 전월비 805.1% 및 51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도 131%의 증가율을 보임
  - 미국에 대한 투자는 전월비 553.9% 증가
-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월비 10.3% 감소
  - 한국에 대한 투자는 68.8% 감소, 중국에 대한 투자는 37% 증가

< 2014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2013년	2014.9월			2014.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31,946	6,907	8.1	54.8	15,159	119.5	73.2
아시아	39,294	3,702	52.5	100.0	3,322	-10.3	-3.1
중 국	8,855	651	26.9	119.2	892	37.0	-36.2
한 국	3,209	301	12.7	126.3	94	-68.8	17.5
북 미	45,698	1,172	-45.1	-5.9	7,191	513.5	174.0
미 국	42,933	1,092	-40.5	2.2	7,141	553.9	220.9
중남미	9,902	1,273	25.2	95.8	639	-49.9	-
유 럽	31,567	378	-52.1	147.1	3,421	805.1	58.4
대양주	5,895	174	-	-70.1	402	131.0	-43.8
중동	-92	101	288.5	405.0	46	-54.5	-
아프리카	504	106	92.7	387.9	139	31.1	-

자료 : 일본 재무성

## □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3가지로 집약

- 첫째, M&A형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13.4월~'14.3월 기간 중 521건으로 최고치 기록
  -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는 자원확보형 투자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해외 자원확보형 투자 진출이 확대
- 둘째,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 엔저에도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생산단가 저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 현지시장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 등 때문임
- 셋째, 일본기업들의 직접투자·생산거점이 소비지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현지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출로 대체
  - 대미 수출 승용차의 경우, 생산거점이 일본으로부터 멕시코로 이전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대미수출이 멕시코 현지기업으로부터의 대미수출로 대체
  - 엔저가 되더라도 현지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출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로 역대체되기 어려움

### Ⅲ. 일본의 주요 정책

#### 1. 2014년 일본경제의 평가 및 정책과제

##### 가. 2014년 일본경제

- 2014년 4월 이전까지의 일본경제는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완화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 플러스의 경제성장율을 기록
  - 특히, 2014년 1분기에는 소비세증세 이전 가수요 발생 등으로 전기비 연율로 5.8%의 성장률을 기록
- 그러나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에 따라 소비세 증세 이전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에 의한 소비의 급감, 소비세증세분의 가격전가→ 물가상승→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 등, 소비세 증세의 악영향이 예상외로 장기화됨에 따라 2분기(-6.7%), 3분기(-1.9%)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1분기 플러스성장에는 소비의 기여도가 가장 컸으며, 이어 수출(재화+서비스), 설비투자의 순으로 기여도가 컸음
  -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는 소비의 마이너스 기여가 가장 컸으며, 이어 설비투자, 수출 순으로 마이너스 기여도가 컸음
  - 3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는 설비투자만이 마이너스 기여를 했으며, 소비와 수출은 플러스 기여를 했음
- 일본은행이 2%를 목표로 설정한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소비세가 인상된 2014년 4월 전월비 2.2%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6월 이후에는 상승폭이 0.0~0.1%대로 둔화되고 있음
  - 최근 추가 금융완화에 의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엔저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유가하락 요인에 의해 상승폭이 잠식되고 있음

- 현금급여로 본 임금은 2014년 1~2월에는 감소, 3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세 증세와 엔저 등에 의한 소비자물가상승폭이 더욱 커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무역수지는 2014년에도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엔저의 가속으로 수출물량 회복 움직임이 보여 지고 있음
  - 그러나 수출증가율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폭은 줄고 있음(2014년 1월 -27,950억엔 → 11월 -8,918억엔)
  - 다만, 2014.1~11월 기간 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4% 증가, 수입은 6.1% 증가, 무역수지적자는 전년동기비 19.8% 확대
  - 경상수지는 2014년 1월에 15,861억엔의 적자, 6월에 3,679억엔의 적자를 기록한 외에는 흑자를 유지한 가운데, 9월에는 흑자폭이 9,630억엔까지 확대, 10월에는 8,334억엔을 유지
- 환율은 2014년 1월 달러당 103엔대에서 출발, 11월까지 116엔대까지 엔저가 가속
  - 미국의 출구전략, 소비세인상으로 인한 일본의 경기후퇴, 무역수지 적자 확대, 그리고 10말의 추가 금융완화 등이 엔저의 가속요인
- 고용은 2014년 1월 이후 8월까지 3.7%~3.8% 수준을 유지했으나 9월부터는 3.5-3.6%에서 안정되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이 2014년 1월 1.04에서 출발, 최근 1.10까지 상승함에 따라 일손부족 현상이 확대
- 주가는 2014년 1월 15,578엔에서 출발하여 5월까지 14,000엔대까지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5월 이후에는 상승세로 반전 최근 17,000엔대까지 상승
- 10년물 장기국채금리로 본 금리는 2014년 1월 0.62%에서 출발, 최근 0.42%까지 하락

## 나. 정책 과제

### (1) 단기과제

- 현재 경기에 대한 소비세 증세의 마이너스 영향이 없어지고 2015년 이후 경제전망을 밝게 하는 재료도 없는 것은 아니나, 일본경제가 불균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
  - 기업실적은 과거 최고수준인데도 투자가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음
  - 고용은 완전고용에 근접한 수준이며, 임금소득의 증가율은 과거 17년 동안 최고인데도,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바람에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있음
  - 다만, 이것이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부분이 크며, 가까운 장래에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음
- 따라서 기업실적과 고용 개선을 여하히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임
- 이에 무엇보다도 임금상승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선순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3년째를 맞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①엔저로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②기업들이 해외가 아닌 일본 국내에서 설비투자를 늘려야 하며, ③실질임금이 늘어야 함
-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하는데 ①,②,③모두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에 의해 해결하기에는 이미 이들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달러당 121엔대의 엔저 하에서도 대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수출이 좀처럼 늘지 않아 ①과 ②가 여의치 않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엔저가 중소기업들의 수입원재료 비용부담과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킴에 따라 ③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이를 위해 우선은 일본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의 소비증대와 중소기업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3.5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이 2014년 12월 27일 결정

## (2) 중장기 과제

### ① 재정안정

- 소비세 증세 연기로 2015년도 목표 달성에 암운이 돌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2015년도 적자반감 목표보다는 2020년도 흑자화 목표 달성임
  - 2014. 7월 일본 내각부의 시산결과에 의하면, 아베노믹스의 성장 시나리오대로 간다하더라도 2020년도 시점에서 아직 GDP 대비 1.8%정도의 적자가 남게 됨
  - 성장이 계속되면 상당한 세수증가가 기대될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 증가를 커버하기는 어려움
- 이에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세출문제 재검토가 시급해지고 있음
  - 당분간은 2015년도까지 적자반감의 확실한 달성을 목표로 한 다음, 사회보장개혁 등 세출문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더욱 서두르고 필요하면 추가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임
  - 또 2020년도 흑자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사회보장개혁을 중심으로 한 세출문제를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출의 재조정, 디플레이션 탈출과 성장에 의한 안정적인 세수확대, 그리고 증세에 의한 세수의 확보, 3가지 중 그 어느것도 빼놓을 수 없음
  - 소비세인상 연기에 의해 소비세 2%의 1년반 분인 8조엔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나, 이보다는 매년 1조엔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후 세출억제효과가 있는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② 성장전략

-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강조하는 임금인상을 통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본에서 투자하고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한 지원으로서 성장전략을 충실히 추진하는 수밖에 없음

-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은 선거후 성장전략을 가속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기업실적의 호조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도 성과가 클 것임을 강조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베노믹스가 안고 있는 과제는 농업, 의료·간병, 노동 등의 분야에서 소위 암반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성장전략을 강화하는 것임
- 현 시점에서 아베노믹스는 금융정책이나 공동투자 등의 캠퍼주사 성격을 지닌 정책이 중심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기업의 신진대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중요
- 그 동안 아베노믹스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개선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분배정책 차원에서의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성장정책이 불충분했던 데 있다는 진단이 유력함
-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성장전략의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개선, 특히 농업, 의료·간병, 노동 등 기득권이 강한 분야의 암반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데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음

##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 1. 11월, 대일무역적자 확대

#### □ (총 합)

- ‘14.11월 대일 무역적자는 1,823백만 달러로, 10월에 비해 119백만 달러 확대
  - 대일 수출은 2,525백만 달러, 대일 수입은 4,348백만 달러
  - 대일무역적자 확대는 수출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보다 컸던데 따른 것임

< 2014년 11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

	2014.10월			2014.11월			2014.1-11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수출	2,920	-2.2	6.8	<b>2,525</b>	-25.3	<b>-13.5</b>	29,831	-6.8
대일수입	4,624	-9.2	-1.5	<b>4,348</b>	-7.6	<b>-6.0</b>	49,313	-10.7
무역수지	-1,704	-404	-257	<b>-1,823</b>	497	<b>119</b>	-19,482	-3,711

주) 수출, 수입의 증감은 %, 무역수지의 증감은 백만달러

자료 : 한국무역통계

#### □ (대일 수출)

- ‘14.11월의 대일 수출은 10월에 비하여 13.5% 감소
  - 이는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감소율 8.8%를 상회하는 동시에, 일본의 수입 감소율 4.1%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대일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시사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 11월	-25.3	<b>-13.5</b>	-2.1	<b>-8.8</b>	1.7	<b>-4.1</b>
2014.1-11월	-6.8	-	2.3	-	6.1	-

- ‘14.11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정밀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 수송기계의 수출 감소폭이 30.6%로 가장 크고, 이어 철강제품(18.3%), 광물성연료(17.2%), 기계요소공구·금형(15%), 석유화학제품(14.5%)가 평균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대일 수출이 유일하게 증가한 정밀화학제품은 2.4% 증가

< 2014년 11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4.10월			2014.11월			2014.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920	-2.2	6.8	<b>2,525</b>	-25.3	<b>-13.5</b>	29,831	-6.8
1	광물성연료	570	8.9	-11.8	<b>472</b>	-54.2	<b>-17.2</b>	61,334	-22.8
2	산업용전자제품	312	-23.3	57.6	<b>278</b>	-10.0	<b>-10.9</b>	26,000	-13.8
3	철강제품	335	-6.3	4.0	<b>274</b>	-26.9	<b>-18.3</b>	36,954	10.8
4	전자부품	197	-20.2	4.8	<b>190</b>	-21.7	<b>-3.6</b>	21,897	-16.4
5	석유화학제품	152	19.4	15.2	<b>130</b>	-0.8	<b>-14.5</b>	15,288	-8.3
6	정밀화학제품	126	-1.8	-1.6	<b>129</b>	-1.6	<b>2.4</b>	13,920	3.7
7	금속광물	102	-19.0	-9.7	<b>96</b>	-15.8	<b>-5.9</b>	10,254	-16.1
8	농산물	100	3.7	20.5	<b>91</b>	-10.0	<b>-9.0</b>	10,086	4.2
9	수송기계	131	28.9	33.7	<b>91</b>	-9.2	<b>-30.6</b>	11,727	10.6
10	기계요소공구·금형	100	19.3	14.9	<b>85</b>	1.4	<b>-15.0</b>	10,374	16.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대일 수입)

- ‘14.11월의 대일 수입은 10월에 비하여 6% 감소
  - 동 기간 중 총수입감소율은 전월비 6.5%로 대일 수입감소율을 상회
- ‘14.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정밀기계, 기초산업기계 등 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 철강제품의 수입감소폭이 15.4%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기계(13.6%), 전자부품(13.5%), 플라스틱제품(13.4%), 산업용전자제품(12.7%)등이 10% 이상의 감소폭을 보임
  - 대일 수입증가 품목에서는 정밀기계가 80.7%의 높은 수입증가율이 보이는데 이어, 기초산업기계 15.3%의 수입증가율을 보임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 11월	-7.6	-6.0	-4.0	-6.5
2014. 1-11월	-10.7	-	2.2	-

< 2014년 1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단위: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4.10월			2014.11월			2014.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4,624	-9.2	-1.5	4,348	-7.6	-6.0	49,313	-10.7
1	철강제품	688	-0.7	-3.0	582	-20.6	-15.4	7,641	-8.7
2	전자부품	624	-11.3	1.0	540	-17.7	-13.5	5,782	-13.6
3	석유화학제품	530	10.9	-12.4	527	-4.0	-0.6	5,644	-8.5
4	기초산업기계	314	-44.9	6.4	362	-5.9	15.3	3,302	-26.2
5	정밀기계	187	-23.5	8.1	338	74.7	80.7	2,327	-11.9
6	정밀화학제품	360	-3.8	1.7	332	-8.0	-7.8	3,938	-3.8
7	수송기계	222	1.7	2.3	209	2.0	-5.9	2,299	5.9
8	플라스틱제품	239	-13.5	-0.8	207	-13.8	-13.4	2,616	-13.4
7	산업용전자제품	236	-13.0	8.3	206	-10.4	-12.7	2,592	1.2
10	산업기계	191	0.9	-4.0	165	8.7	-13.6	2,162	-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 대일 경제관계에 악재, 호재 병존

□ (동향) : ‘14.3분기 일본의 대한투자, 증가로 반전

- ‘14.3분기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489백만 달러로 전기 대비 21.3% 증가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14.9%의 감소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
  - 건수로는 10% 감소
- 한편, 2014년 1~3분기 일본의 대한투자 누계는 1,638백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
  - 이 역시 동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37.9%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
  - 건수로도 24.1%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 >**

	2013년		2014.1분기		2014.2분기		2014.3분기		2014.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99 (-11.6)	746 (2.3)	80 (-19.2)	403 (-46.0)	72 (-10.0)	489 (21.3)	251 (-24.1)	1,638 (-16.6)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571 (-15.3)	5,062 (33.1)	583 (2.1)	5,272 (4.1)	563 (-3.4)	4,484 (-14.9)	1,717 (-11.2)	14,818 (37.9)

주) ( )내는 전기 대비 증가율 2014.1-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최근 한·일 기업간 산업협력 사례)**

- 일본의 친환경재생산업체(RPM)인 (주)에코마트산업이 광양항 배후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물류창고 및 기반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2014.9.25.)
- 일본의 대표적인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MJS가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웹케시에 증자 및 주식 매입 방식으로 25억 원을 투자(2014.10.24.)
- 한국 파라다이스그룹과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의 합작투자로 통합형리조트 사업 추진 (2014.12.6.)
  - 양사가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 파라다이스시티 건설에 착공
- 일본 미쓰이트러스트홀딩스와 한국 하나파이낸셜그룹(FG)간 업무제휴로 일본의 투자상품 제공, 한일기업에 의한 M&A 중개사업 등을 추진(2014.12.10.)

**□ (시사점)**

-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에 이어, 엔저 가속, 아베내각의 총선 승리에 따른 경기부양책 실시, 성장전략 강화 등이 한일경제 관계에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
  - 엔저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기는 하나, 최근 엔저국면에서도 일본의 월별 해외직접투자가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엔저가 반드시 일본의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일 경제교류를 둘러싼 이 같은 환경변화는 대일 수출과 일본의 대한 투자에 호재와 악재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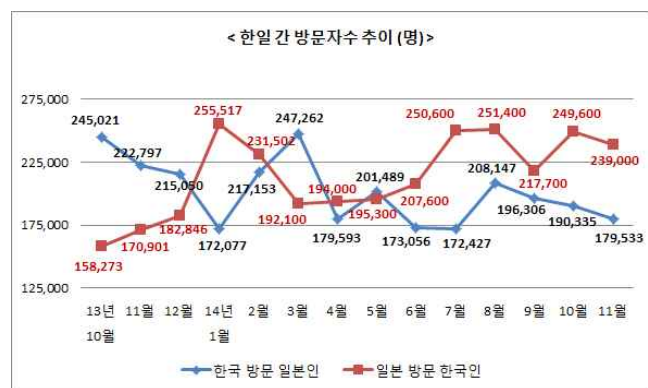
### 3. 3개월 연속 방한 일본인 감소, 방일 한국인도 감소

#### □ (일본인 방한) ‘14.11월에도 3개월 연속 감소

- ‘14.11월 일본인 입국자수는 179,533명으로 10월보다 5.7% 감소
- 전년동기비로는 19.4% 감소

#### □ (한국인 방일) ‘14.11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도 감소

- ‘14.1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도 239,000명으로 10월보다 4.2% 감소
- 그러나 전년동기비로는 39.8% 증가했는데, 이는 엔저, 10월부터 실시된 소비세면세제도,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방일 프로모션 등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 V. 참고 자료

###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4.11월~12월)

#### □ 국내기관

- 『日 서비스 산업의 칼끝은 이미 세계로』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12월18일  
<http://iit.kita.net/>
- 『일본 총선(12.14) 결과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KOTRA, 2014년 12월18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1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nolink](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1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nolink)
- 『일본의 recession기 정책당국의 주요 대응사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4년 12월18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2539&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日총선 결과 아베노믹스 '18년까지 유지 가능성 높아, 엔화, 법인세, TPP주목』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12월17일  
<http://iit.kita.net/>
- 『엔저에 따른 일본 수출환경 변화와 KOTRA 대응전략』 KOTRA, 2014년 12월12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1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nolink](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1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nolink)
- 『한국 동해안 4개 지역과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12월1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033>
- 『[일본경제 포럼] 2015년 한일경제의 향방』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12월1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031>
- 『일본종합상사 기업전략 분석 및 시사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12월9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028>
-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4년 12월5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1793&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5&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제조업의 저력과 분업 생태계 활용한 혁신 전략』 LG경제연구원, 2014년 12월5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4&ctype=g&grouping\\_seq=01040200\\_488](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4&ctype=g&grouping_seq=01040200_488)
- 『아베노믹스의 시련과 엔저 장기화의 파장 外』 LG경제연구원, 2014년 12월3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businessInsight/list.asp>
- 『일본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특징과 對韓투자 확대방안』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11월20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007>

## □ 일본기관

- 『부가가치무역;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연구메모』 경제산업연구소, 2014년 12월 26일  
<http://www.rieti.go.jp/users/tanaka-ayumu/serial/026.html>
- 『TPP와 아태지역에서 대국의 패권경쟁』 JC종합연구소, 2014년 12월25일  
<http://www.jc-so-ken.or.jp/pdf/agri/tpp/22.pdf>
- 『아베노믹스 2년 엔저, 수요부족 해소에 필요』 경제산업연구소, 2014년 12월23일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fukao/10.html>
- 『2014년판 일본의 생산성 동향』 일본생산성본부, 2014년 12월19일  
[http://www.jpc-net.jp/annual\\_trend/](http://www.jpc-net.jp/annual_trend/)
- 『TPP교섭의 현황』 JC종합연구소, 2014년 12월 13일  
[http://www.jc-so-ken.or.jp/agriculture/pdf/141212\\_01.pdf](http://www.jc-so-ken.or.jp/agriculture/pdf/141212_01.pdf)
- 『일본기업의 경쟁력과 수직분업모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4년 12월13일  
<http://www.iti.or.jp/kikan98/98tejima.pdf>
- 『일본의 수출구조 분석; 수량지향형 수출과 가격지향형 수출』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4년 12월13일  
<http://www3.keizaireport.com/report.php?screen=4&node=2>
- 『중소제조업의 해외생산전개가 국내거점에 미치는 영향』 동경대학모노즈쿠리경영연구센터, 2014년 12월13일  
[http://merc.e.u-tokyo.ac.jp/mmrc/dp/pdf/MMRC464\\_2014.pdf](http://merc.e.u-tokyo.ac.jp/mmrc/dp/pdf/MMRC464_2014.pdf)
- 『2020동경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30조엔』 미즈호종합연구소, 2014년 12월11일  
<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report/report14-1210.pdf>

## 2.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12월)

일자	주요 행사 내용
1	• 한일 재계회의(서울)
	• 제6차 RCEP 협상 회의(인도, 5일까지)
	• 제1차 日-터키 FTA 협상 회의(도쿄)
2	• 중의원 선거 공시
3	• 원자력규제위원회
8	• 제8차 日-EU FTA 협상 회의(도쿄)
	• 10월 국제수지(재무성)
	• 7~9월기 GDP 개정치(내각부)
10	• 특정비밀보호법 시행
	• 노벨상 수상식(스톡홀름)
12	• TPP 수석교섭관 회의(워싱턴)
	• 10월 광공업생산지수(경산성)
14	• 중의원선거
24	• 특별국회 소집(26일까지)
	• 제3차 아베내각 출범
26	• 11월 소비자물가지수(총무성)
	• 11월 완전실업률(총무성)
	• 11월 유효구인배수(노동성)
27	• 긴급경제대책 각의결정